

朴世采의 『증산염락풍아(增刪濂洛風雅)』 增補 作品 考

김동하*

<차 례>

1. 序論
2. 『增刪濂洛風雅』의 性格
3. 『增刪濂洛風雅』 增補 作品의 特徵
 - 3.1 心性 修養의 箴戒
 - 3.2 志同道合의 表出
 - 3.3 借山水明道의 具現
 - 3.4 格物致知의 詠嘆
4. 結論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세채의 『증산염락풍아』 증보 작품의 성격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염락풍아』는 송말 원초의 학자인 김이상(金以相)이 송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의 시문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교양 필독서로 자리하며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조선 중기의 학자인 박세채는 『염락풍아』를 증산하여 『증산염락풍아』란 이름으로 간행했다. 이는 편자인 박세채의 특정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포편을 넘어, 시대상이나 문학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먼저 『증산염락풍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증산염락풍아』는 편자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과 비평 기준,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증산

* 서영대학교

한 것이다. 김이상의 『염락풍아』에 비해 주자학적 이념이 훨씬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증보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구체적 작품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성 수양의 잠계이다. 박세채는 고체의 형식을 빌려 箴이나 銘이란 시제로, 심성 수양법 중의 하나인 敬을 다룬 작품을 주로 증보하였다. 이는 자신이 敬에 대한 여러 설을 뽑아 엮은 『心學至訣』을 저술한 사실과도 관련된다.

둘째, 지동도합의 표출이다. 박세채는 주자를 중심으로, 성리학 발달에 기여한 학자나 주자와 직접적인 사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작품을 주로 증보하였다. 성리학자인 소옹과 장식, 주자의 스승인 이동과 유병산, 그리고 재전제자인 응화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셋째, 차산수명도의 구현이다. <무이도가>를 순수한 산수시로 간주했던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학문 입도 차제의 조도시로 파악했다. 이는 원의 학자인 진보의 설을 추종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보편적 견해의 반영이자, 박세채의 정통 주자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격물치지의 영탄이다. 박세채는 격물치지의 예로서, 소옹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증보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觀物詩>, <首尾吟>, <天意>, <極論>, <先天吟>, <感事吟>, <天道吟>, <閒吟>, <觀物> 등이 있다.

핵심어 : 김이상, 염락풍아, 박세채, 증산염락풍아, 정통 주자학, 심성 수양, 경, 지동도합, 차산수명도, 격물치지.

1. 序論

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리학이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된 이후, 송말 원초의 성리학자인 김이상(金履祥, 1232-1303)이 송대 성리학자들의 작품을 모아 편집한 『濂洛風雅』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필수적 교양서로 자리를 잡으며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이는 『염락풍아』가 1565년(명종 20) 순천부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것을 계기로 오랜 기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판본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로도 실증된다.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는 김이상의 『염락풍아』를 증산하여, 1678년(숙종 4)에 『증산염락풍아』 7권2책을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書體字)로 간행하였다. 이 책은 증가시킨 작품에는 ‘增’이란 글자가, 刪除 대상이 된 작품에는 ‘刪’이란 글자가 표시되어 있어 『염락풍아』에 증산을 하게 된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박세채가 원래의 『濂洛風雅』에 대해 증산한 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작품에 대한 개인적 포폄의 차원을 넘어 당시의 시대상이나 문학관 등을 함축적으로 반영한 구체적 사례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박세채의 『增刪濂洛風雅』가 지니는 학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학계의 연구는 극히 미약하여 이본 연구 수준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박세채가 김이상의 『濂洛風雅』를 어떤 의도에서 증산했으며, 증산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상

1) 『增刪濂洛風雅』의 판본에 대해서는, 김기림의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제6집, 동양고전학회, 1996와 김영봉의 「『濂洛風雅』 異本 연구」, 『동방고전문학연구』 제4집, 동방고전문학회, 2002 등의 논문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濂洛風雅』의 간행 상황과 독서 실상을 다룬 최은주의 「조선 후기 『濂洛風雅』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제26집, 대동한문학회, 2007이 있다. 위의 논문들은 이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증산이 표시된 7卷2冊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增刪濂洛風雅』를 대본으로 했다.

의 제약을 고려하여, 여기에선 우선 증보한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알아보고, 다음 호에 산재한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增刪濂洛風雅』의 性格

『濂洛風雅』는 송말 원초의 성리학자인 김이상²⁾이 1296년 周子, 程子, 王柏, 王偁 등 48인의 송대 성리학자들의 작품 423수를 모아 놓은 시 선집이다.

『濂洛風雅』의 성격은 바로 책 이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염락’³⁾이란 말은 이른바 송조5현이라 불리는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주희 등이 살았던 지역적 의미와 함께 그들을 중심으로 쓰인 시를, ‘풍아’란 말은 『시경』의 국풍과 소아, 대아의 시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濂洛風雅』란 송조5현을 중심으로 쓰인, 『시경』의 ‘風雅’를 모범으로 삼은 송대의 시를 모아 놓은 작품집이라 정의할 수 있다. 『濂洛風雅』에 대해, 唐良瑞는 <濂洛風雅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시란 것은 뜻이 가는 바이니, 뜻도 바른 것이 있고 편벽된 것이 있고, 통한 것이 있으며 가려진 것이 있다. 그러한 즉 시도 순박함이 있고, 잡된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치우치고 막힌 말(글)은 中正에서 발하는 것만 못하니, 방광이나 비애와 우수가 가득한 모습은 冲淡

2) 金履祥(1232-1303)은 자가 吉甫이고 호는 仁山이며, 金華 蘭溪 사람이다. 김이상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16세에 補郡庠生 18세에 待補太學生이 되었고, 王相(王柏의 족제)의 추천으로 왕백의 제자가 되었다. 다시 왕백의 소개로 何基의 제자가 되었다. 왕백과 하기의 정식 제자가 된 후로는 공명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금화에 서 ‘의리지학’을 추구했다. 그러나 세사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어서, 40세 때에는 조정에 獻策하기도 하고, 嚴州郡守의 요청으로 釣臺書院의 主教를 맡기도 했다. 45세 때 元兵이 임안을 공격해 오자 다시 금화산의 산속으로 피신했으며, 송 왕조가 정식으로 멸망하자 금화 일대에 은거하며 강학과 저술에만 힘썼다.

3) ‘염락’이란 ‘濂洛關閩’의 줄임말로, 송말에서 원초에 활약한 이학자인 金履祥이, 주돈이 이하 48인의 송대 이학자의 시를 한데 모아 『濂洛風雅』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이들의 시와 같은 특징과 경향을 지닌 일련의 시들을 부르는 말로도 쓰인다.

의 소리만 같지 못하다.⁴⁾

이는 『濂洛風雅』에 수록된 시가, 『書經』의 ‘詩言志’⁵⁾와 『詩經』의 ‘詩者志之所之’⁶⁾라는 동양의 전통적 시관에 따라, 中正에서 발현하는 冲淡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의 시는 풍아의 체가 아니나, ‘염락’을 연원으로 하는 제공의 시는 곧 진실로 풍아의 뜻이 있다.”⁷⁾라고 하여 ‘염락’을 연원으로 하는 『濂洛風雅』의 시만이 진실로 풍아의 뜻을 갖추고 있다고 평한 것이다. 潘府도 <濂洛風雅重刊序>에서 같은 견해를 나타낸다.

예로부터 시를 말하는 사람은 모두 풍아로써 조종을 삼고, 도연명과 두보 등 제가를 다음으로 한다. 元의 至元·元貞 年間(1280 전후)에 이르러 ‘염락 풍아’란 책 1권이 처음 나왔다. 그 시는 冲和하고 純正하다. 진실로 모두 도덕의 榮華가 발현되어 한 편 가운데 스승과 친구 간에 연원의 통기(근본)가 바르고, 정풍·변풍·소아·대아의 체례들 또한 김(이상) 당(량서) 두 선생들이 종류를 모아 놓은 것이 정밀함을 볼 수 있으니, 천박한 선비와 속된 학자가 능히 이를 수 없는 바가 있다. ⁸⁾

『濂洛風雅』가 중용의 中正 사상에 가장 충실한 『시경』의 ‘풍아’를 전범으로, 도연명과 두보를 이상으로 한 선집임을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濂洛風雅』가 충화와 순정의 풍격을 지니, 도덕의 영화가 발현되고 도학의 연원이 바른 높은 경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이상의 『濂洛風雅』는 조선에 전해져 1565년(명종 20) 순천부에서 처

4) 唐良瑞, <濂洛風雅序>, “詩者 志之所之也 志有正有偏通有蔽 則詩有淳有駁有晦有明 故偏滯之辭 不若中正之發而放曠悲哀之態 不若和平冲淡之音.”

5) 『書經』, 「舜典」, “詩言志 歌永言.”

6) 『詩經』, 「大序」,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7) 唐良瑞, <濂洛風雅序>, “竊以爲 今之詩 非風雅之體 而濂洛淵源諸公之詩 則固風雅之意也.”

8) 潘府, <濂洛風雅重刊序>, “自古言詩者 皆以風雅爲祖宗 以陶靖節杜子美諸家次之 至元元貞間 濂洛風雅一編始出焉 其詩冲和純正 固皆道德榮華之發見而一編之中 師友淵源之統紀 政變大小之體例又見 金唐二君子類萃之精 有非淺儒俗學能到.”

음으로 간행된 이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판본으로 출판되어, 성리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필수적 교양서로 자리를 잡으며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박세채⁹⁾는 김이상의 『염락풍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산 김 선생이 송나라 말기에 태어나 위로는 자양(주자) 四傳의 실마리에 접하고, 은거하며 책을 지으니 그 글이 정심하고 평원함이 진실로 많다. 진실로 성정에 도움이 됨이 많다. 그러나 오직 이 한 편은 더욱 옛날 성현들이, 학문하는 남긴 뜻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었다. 대개 또한 제현들을 따라서 평소에 箴訓이나 諷詠의 가운데에 표출하여 이 글을 완성했다. 그 극진한 것은 진실로 이미 저 性命의 오묘함을 드러냈고 存省의 정밀함에 관련되어 있다. 아래로는 오히려 죽히 써 이단을 물리치고 利의 근원을 막고, 자기가 향한 바에 대해 해매지 않으니 학자로 하여금 외우고 완미하게 하며, 감동하고 분발하고 경계하고 두렵게 한다. 그리하여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그 마음에 게으름을 지니지 않도록 하며, 침착하고 여유 있게 가르침에 함영하며 손발이 춤추는 경지에 이르러 능히 스스로 그치지 않게 한다. 이로써 헤아리면 비록 반우의 커다란 가르침과 성악의 지극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어찌 이것을 넘을 수 있겠는가. 아! 훌륭하도다.¹⁰⁾

9) 박세채(1631-1695)는 홍문관교리인 朴滌와 象村 申欽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和叔, 호는 玄石, 南溪이며 본관은 潘南이다. 그의 가계는 명문세족으로 증조부 박응복은 대사헌, 조부 오창공 박동량은 형조판서를 지냈다. 『思辨錄』을 저술한 西溪 朴世堂과는 당내 간이다. 그는 1649년(인조 27)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1650년(효종 1)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영남 유생들의 상소를 비판하다, 효종의 질책을 받자 과거를 포기하고 경학에 전념할 뜻을 세웠다고 전한다. 1651년 金尙憲과 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그의 백부 濠, 중부 瀾, 그리고 아버지가 모두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한 바 있는 師承 관계의 인연을 지닌다. 1698년(숙종 24)에 文純公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1764년(영조 40)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10) 朴世采, <增刪濂洛風雅序>, “仁山金先生生于宋季 上接紫陽四傳之緒 隱居著書 精深宏遠 固多可以羽翼聖經者 而惟此一 編尤有所補於古昔聖賢爲學之遺意 蓋亦從諸賢平日箴訓諷詠中表出而成書 其至者固已闡夫性命之奧而關乎存省之密 下猶足以斥異端塞利源 不迷於所向. 使學者誦而玩之 感奮戒懼. 不敢以毫髮有懈于其心 優游涵泳 馴而至於手舞足蹈之域而不能自已 以是 揆之 雖古盤盂之大訓 聲樂之至教 其何以過此 嗚呼盛哉.”

박세채는 『濂洛風雅』를, 성정에 도움이 되는, 제현들의 잠훈과 풍영의 작품만을 모은 것으로 보았다. 동시에 성명의 오묘함과 존성의 정밀함을 간직한 이런 작품을 익힘으로써 이단을 물리치고 이욕의 근원을 막는 데 효과적임을 찬양했다. 나아가 『增刪濂洛風雅』의 편찬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생각해 보면 그 기록한 바가 자못 넓다고 해도 혹 다 바로잡을 여유를 갖지 못했다. 諷詠에 절실한 것은 오히려 멋대로 하여 넘치는 것이 많다. 지금 모두 性理群書나 性理大全 등의 책 같은 데서, 또한 가히 약간의 增刪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감히 다스려 모아 선사하여 구구히 아침·저녁으로 경계하는 바탕을 갖추니, 거의 선생의 가르침에 배치됨이 없다. 나(세채)와 같이 불초한 사람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느끼는 바가 있었다. 이에 성학이 다시 밝아짐으로부터 책을 서가에 가득히 채워서 후인들의 중요한 점을 모으기에 이르렀다. 미묘한 점을 제시하여 후인들에게 주려는 뜻이 더욱 얹지 않다고 하겠다. 오직 그 배우는 사람이 이로 인하여 공부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다. 그 병폐가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檢防한 것이 엄격하지 못하고, 소상하게 이해한 것이 깊지 못한 까닭일 뿐이다. 11)

박세채는 『性理群書』¹²⁾나 『性理大全』¹³⁾ 같은 여러 성리학서를 정독해 본 결과, 『濂洛風雅』가 풍영에 절실한 작품이 오히려 멋대로 넘쳐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증산을 한 것이다. 이는 『性理

11) 朴世采, <增刪濂洛風雅序>, “顧其所錄頗廣 或有未暇盡正 而諷詠 切實者猶多放軼 今皆續見於性理群書大全等書 似亦不可不爲之略加增刪 茲敢釐輯繕寫 以備區區朝夕 警戒之資 庶幾無負于先生之教者 采之不肖 於此竊有所感焉 粵自聖學再明以來 其書盈架 至爲後人纂要揭微以畀之意 益不淺矣 獨其學者因此而有所樹立者 訖未多聞 其病 安在 特以檢防之不嚴 融會之不深焉耳。”

12) 송나라의 熊節이 편찬하고, 熊剛大가 주석한 책이다. 모두 23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송나라 때의 주돈이, 정자, 장재, 소옹, 사마광, 주자 등 학자들의 글을 모아 분류하여 편찬하였다.

13) 『性理大典』 卷38 「道統」에는 聖賢 總論에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공맹 문인, 諸儒一에, 주자, 정자, 장자, 소자, 諸儒二에 정자 문인, 나중언, 이동, 호안국, 諸儒三에 주자, 장식 諸儒四에 여조겸, 육구연, 주자 문인, 진덕수, 위화보, 허형, 오증 등 대표적 성리학자들을 다루고 있다.

群書』나 『性理大全』을 근거로, 성리의 의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을 표준으로 삼아 증보하고, 단순한 寫事, 서정, 영물, 한정, 유희 등 성리에 관계되지 않거나, 노장이나 석씨 등 정통 주자학과 배척되는 작품은 산제함을 천명한 것이다.

3. 『增刪濂洛風雅』 增補 作品의 特徵

박세채가 『增刪濂洛風雅』에서 증보한 작품을 시형별로 보면, 근체시가 86수이고 고체시가 56수로 근체시가 고체시보다 많다. 그러나 주희의 작품인 <奉同張敬夫城南諸詠> 9수, <雲谷諸詠> 8수, <武夷權歌> 10수, <雲谷雜詩十二首>와 熊禾의 <上嚴察訪七首> 등이 연작시 형식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체의 작품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박세채가 시형에 있어 근체시보다는 고체시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작자와 작품면에서 보면, 『增刪濂洛風雅』에는 20명의 작자의 작품 142수가 증보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朱熹 84수, 邵雍 17수, 熊禾 14편, 張栻 7수, 眞德秀 4수, 蔡西山, 劉彥翀, 魏鶴山, 司馬光 등이 각각 2수, 나머지는 모두 1수이다. 주희의 작품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조5현 중 소옹과 장식의 24수까지 합하면 전체 작품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숫자다. 이는 『增刪濂洛風雅』의 증보 작품이 대부분 주자와 소옹과 장식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인다. 아울러 주자의 경우 고체와 근체 등 시형에 관계 없이 다양한 내용을 증보하고 있으나, 소옹과 장식의 경우에는 고체의 형식으로, 명, 찬, 잠 등의 시제로 심성 수양에 관한 교훈적 내용 위주로 증보함으로써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¹⁴⁾

14) 산제한 작자와 작품의 경우, 왕백이 24편으로 제일 많고, 주송과 양구산이 15편, 주자가 12편, 왕립재와 여선공이 10편, 장식과 유명산, 섭채가 7편, 증운소와 노재가 6편, 여본중이 4편, 하기, 나예장, 정명도, 여운각, 임졸재가 3편 등으로 모두 44인에 177편으로, 산제한 작자가 훨씬 다양하고 작품의 수도 월등하다.

3.1. 心性 修養의 箴戒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理(性)에 둔다. 만물 중의 으뜸이 되는 인간은 사물의 리와 구별되는 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仁義禮智’라는 선한 본성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이 신체 안에 깃들면서, 기질의 영향을 받아 실제에서는 불선한 행동을 나타 내기도 한다. 바로 주자가 말한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이다. 미발 상태의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이 밖으로 표현되면 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정을 아우르는 것이 마음이다. 본연의 성은 선 그 자체이나, 기질의 성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본연의 성이 신체적 기질에 지배되어, 감정의 과부족으로 부정이 생길 때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여기에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자, 심학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마음 공부를 주장하는 이학가들의 글은 주로 箴銘의 형식을 통해 나타난다. 잠명은 주로, 송학이 발흥한 이후 학자들이 자신을 엄정하게 구속하고 다잡기 위해 지은 강령이나 지침을 말한다. 箴銘은 劉勰이 『文心雕龍』 「銘箴」에서, “옛날 황제는 수레와 탁자에 문구를 새겨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으로 삼았다.”¹⁵⁾라고 했듯이 깊은 연원을 지닌 문체 중의 하나이다. “銘은 名이다(銘者名也).”라고 하여, 그릇에 글자를 새긴 것을 말하며, “箴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석침에 비유될 수 있다.”¹⁶⁾라고 했다. 치료한다는 것은 잘못을 고치는 것이고, 예방한다는 것은 바로 경계함을 뜻한다. 이어 “찬에 이르기를 명은 기물에 기록한 것이고, 잠은 도덕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명과 잠의 말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니, 그저 수면에 자신을 비추어 보듯 하지 말라. 참되고 바른 행동을 고무하는 말들을 잘 지켜, 삼가고 근심하면서 모든 행

15) 劉勰, 『文心雕龍』, 「銘箴」, “昔帝軒刻輿几以弼違.”

16) 劉勰, 『文心雕龍』, 「銘箴」, “箴者 針也 所以攻疾防患.”

동을 하라.”¹⁷⁾라고 했다.

성리학자들은 성인을 목표로, 위인지학이 아닌 위기지학을 몸소 실천하며 끊임없이 수양에 정진하는 삶을 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이상의 『濂洛風雅』에는 심성 수양과 관련된 작품이 적지 않다. 김이상의 『濂洛風雅』에 실린 심성 수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작품으로는 <四箴>, <小學題辭>, <學古齋銘>, <求放心齋銘>, <尊德性齋銘>, <敬恕齋銘>, <敬齋箴>, <讀書樓銘>, <顧齋銘> 등을 들 수 있다. 정명도의 <四箴>은 視箴, 聽箴, 言箴, 動箴으로 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밝힌 것으로, 정도와 순리를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잠언이다. 주희의 <小學題辭>는 『小學』을 편찬하며 쓴 권두언으로, 소학을 짓게 된 연유와 어린아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원칙 등을 제시한 글이고, <學古齋銘>은 포성 원 周嗣恭이 부친인 徽猷公이 지은 학교재를 수리하여 집안 자제들을 교육하자 편액을 써주며 지은 글이며, <求放心齋銘>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는다는 의미의 程正思가 만든 구방심재란 서재에 새긴 글이고, <尊德性齋銘>은 程允夫가 지은 서재 이름인 ‘도문학’을 ‘존덕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지은 글이고, <敬恕齋銘>은 陳師中이 독서하는 서재를 주희가 ‘경서’라고 명명하고서 지은 글이며, <敬齋箴>은 주희가 장식의 <主一箴>을 읽고 난 뒤 지어, 서재의 벽에 붙여두고 스스로 경계했다는 글이다. 한편 장식의 <讀書樓銘>은 독서의 진정한 의미가, 성인들의 말씀에 따른 치열한 구도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밝힌 글이며, <顧齋銘>은 말보다는 실천을 중시할 것을 역설한 글이다.

박세채는 위의 작품에 <心箴>, <書字銘>, <寫照銘>, <調息箴>, <主一齋箴>, <消人欲銘>, <長天理銘>, <主一箴>, <蒙齋銘>, <敬義齋銘>, <心經贊>, <勿齋箴>, <夙興夜寐箴> 등의 작품을 증보하였는데, 모두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들이다. 范浚¹⁸⁾은 <心箴>에서, “몸의 미약함이 큰 창

17) 劉勰, 『文心雕龍』, 「銘箴」, “贊曰 銘實器表 箴惟德軌 有佩於言 無鑒於水 秉茲貞厲 警乎立履.”

고의 한 낱알에 불과한데, 삼재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是身之微 泰倉稊米 參爲三才 曰惟心爾).”라고 하여 마음의 위대함과 함께 물욕에 지배되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배움이란 깨닫는 것이고, 깨달음은 마음으로 말미암는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무슨 깨달음이 있겠는가(學者覺也 覺由乎心 心且不存 何覺之有).”라고 하여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眞德秀(1178-1235)¹⁹⁾는 『心經』²⁰⁾을 찬한 <心經贊>에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준,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따르는 마음은 지극히 희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중용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²¹⁾라는 말은 만세토록 전해오는 心學의 근원이라 했다. 나아가 “환한 창가 궤안에 기대어, 맑은 낮에 화로에 향을 피우고, 책을 펴고 엄숙하게 나의 천군을 마주한다(明牕棊几, 淸晝爐薰, 開卷

18) 范浚(1102-1150)은 자가 茂名 혹은 茂明으로, 婺州 蘭溪(현 浙江省 蘭溪) 사람이며, 세칭 ‘香溪先生’으로 불린다. 고종 紹興 원년(1131)에 賢良方正으로 천거되었지만, 秦檜가 정권을 쥐고 있어 출사하지 않았다. 문을 단아걸고 강학에 힘쓴 결과 제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香溪集』22권이 전하는데, 주자가 그 가운데 실린 <심잠>을 중시했다.

19) 眞德秀(1178-1235)는 남송의 복건성 출신이다. 자는 경원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西山先生이라 불리었다. 저서로 『心經』이 있다. 퇴계는 특히 이 책을 몹시 소중하게 여겼다. 선생이 거처하는 방문 위에 ‘敬義齋’라는 편액을 걸어놓고 그 편액을 두고 銘을 지은 것이다. 군자가 거처하는 방의 이름은 ‘공경하고 의로운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20) 『心經』은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란 뜻으로, 원래 남송의 주자학파인 西山 眞德秀가 경전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 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사서삼경, 周濂溪·程伊川·范浚·주자의 글을 간략히 뽑아 만든 것이다. 명초의 성리학자인 篁墩·程敏政이 이에 관련된 해석과 송 유학자들의 학설을 발췌 보완하여 『心經附註』라 명명했다. 수록된 내용은 먼저 경전에서 뽑은 것으로 『서경』(1장)을 비롯하여, 모두 29장이 실려 있고, 이어 송나라 도학자들의 글로는 周敦頤의 <養心說> 등 7편이 실려 있다. 진덕수는 이 명문들에 송 유학자들의 논의들을 붙여서 주석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心經贊> 1편을 덧붙였다. 1234년 顔若愚가 泉州府學에서 간행하면서 발문을 실었다. 이 발문에서 진덕수가 만년에 다시 천주의 수령이 되었을 때 이 책을 편집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1242년 趙時棧가 진덕수의 『심경』과 『정경』을 합쳐서 간행하였으며, 이 합간본에는 진덕수의 문인 王邁의 서문이 실려 있다. 『文獻備考』에 수록된 『心經法語』는 『심경』과 동일한 책의 다른 명칭이다. 첫머리에 『서경』 「大禹謨」의 人心道心章이 실려 있다.

21)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肅然, 事我天君).”라며 마음 공부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다짐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성에 내재한 至善의 실현이며, 이를 위한 유학자들의 수양 방법에 ‘居敬涵養’이 있다. 거경은 주경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집중시켜 경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²²⁾ 경은 수양론에서 으뜸이 되는 항목으로, 주자는 “경은 배움의 시작과 끝이며, 이른바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는 도이다.”²³⁾라며, “경 공부야말로 진실로 유학의 강령이며, 존양 공부의 핵심이다.”²⁴⁾라고 했다. 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陳栢²⁵⁾의 <夙興夜寐箴>은 敬의 실천 문제를 다룬 수양론적 성격의 글이다. 箴의 제목인 ‘숙흥야매’는 『詩經』 「小宛」의 ‘夙興夜寐 無忝爾所生’에 나온 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양과 학문에 정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한 글이다. 선비들의 마음 공부를 위한 일종의 지침서로, 옛날 서원의 강당인 전교당에 이 글을 새겨놓고 선비들로 하여금 날마다 외우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했다 한다. 이황도 이 ‘숙흥야매잠’에 깊은 감화를 받은 나머지 『聖學十圖』의 ‘십도’를 ‘숙흥야매잠도’로 가득 채울 정도였다.

張栻은 <自修銘>에서, “타고난 천성을 기르고 타고난 정감을 다스리고, 천관을 바로 하고 천륜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경을 세워 경에 머무른 것이다.”²⁶⁾ 라고 하여 경을 통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일잠>과 <주일재명>은 학문의 요점은 바로 경을 지켜 잃지 않는 데 있음을, <소인육명>은 인욕을 없앨 것을, <장천리명>은 ‘天理’ 연장을 역설한 글이다.

박세채가 ‘마음을 오롯이 하고, 생각을 진실하게 함’이 중요하다고 여겨

22)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새문사, 2015, 335쪽.

23) 『朱子大全』卷32, “答張敬夫問 敬者學之終始 所謂徹上徹下之道.”

24) 『朱子語類』卷12, 學6, “持守 敬之一字 眞聖門之綱領 存養之要法.”

25) 전기가 확실하지 않은 인물이다. 퇴계도 이름을 쓰지 않은 채 “남당진공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南塘陳公不知何許人).”라고만 했다.

26) “養天性治天情 正天官盡天…然則先如之何 曰入敬而居敬.”

증보한 작품에 <調息箴>, <書字銘>, <寫照銘> 등이 있다. <調息箴>은 호흡을 할 때의 유의할 점을 적은, 고른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글이며, <書字銘>은 붓으로 글씨를 쓸 때는, “한 점 한 획에 순일함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함(一在其中 點點畫畫).”을 강조한 글이며, <寫照銘>은 초상화에 그려진 자신의 쇠약한 모습에 실망하여, “시작이 있으면 그 과정에 힘써서 반드시 그 끝을 본다(力於始 遂其終).”라는 구절을 새기며 수행 자세를 견지한 글이다.

이처럼 박세채는 고체의 형식을 빌려 잠이나 명의 시제 아래, 심성 수양에 관한 작품을 중심으로 증보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心箴>, <主一齋箴>, <消人欲銘>, <長天理銘>, <主一箴>, <蒙齋銘>, <敬義齋銘>, <心經贊>, <勿齋箴>, <夙興夜寐箴>, <自修銘>, <調息箴>, <書字銘>, <寫照銘> 등으로, 모두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들이다. 박세채는 특히 심성 수양 방법의 하나인 경에 대한 작품을 주로 증보했는데, 이는 자신이 경에 대한 여러 설을 뽑아 엮은 『心學至訣』을 저술한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3.2. 志同道合의 表出

『염락풍아』는 周子로부터 王儒에 이르기까지, 주희를 중심으로 한 스승이나 제자 혹은 재전 제자들로 얽혀 있는 인간적 관계의 기록이다. 때문에 그들의 인간 관계는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유대감과 진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인물의 일생을 통한 인간 관계는 단순한 교유의 차원을 넘어, 그의 인생관 내지 시대 의식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집단과의 교유와 달리, 성리학자들 간의 교유는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학문과 사상에 바탕을 둔 고차원의 것으로, 진정한 志同道合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실로 『논어』 「안연」의, “군자는 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²⁷⁾의 실천이요, 『논어』 「공야장」의 “오래 사

귀어도 공경한다(久而敬之).”의 경지이다. ‘久而敬之’에 대해 정자는, “사람은 사귀기를 오래하면 공경이 쇠해지니, 오래되어도 공경함은 사귀기를 잘하는 것이다.”²⁸⁾라고 풀이했다.

『염락풍아』에는 동료 간의 믿음과 우정을 담은 작품뿐 아니라, 사제 간의 각별한 정을 간직한 작품들이 등장한다. 시를 주고받으며 벗들과의 각별한 정을 전하기도 하고, 사제 간의 무한한 존경과 애뜻한 사랑을 담아 내기도 한다.

박세채는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뿐 아니라, 주자와 사제 관계를 맺은 인물들의 작품도 증보했다. 대표적 인물로는 장식, 소옹을 비롯하여, 주자의 스승인 이동과 유병산, 주자의 재전 제자인 응화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응화의 작품을 가장 많이 증보하여 관심을 끄는데, 이는 박세채가 주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의 도통 의식과 계보를 중시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먼저 주자의 스승인 이동과 유병산에 대한 작품의 증보이다. 주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동이었다.

聞道無餘事 도 듣는 일 외의 일은 얹으시고
 窮居不計年 가난하게 사시며 해 헤아리지 않으셨지
 簞瓢渾謾與 대그릇 밥과 표주박 물에도 여유가 있으시니
 風月自悠然 바람과 달 절로 유유했다네.
 灑落濂溪句 가슴속 탁 트인 연계의 구를 읊조리며,
 從容洛社篇 차분히 낙양 문인들 시편 즐기셨네.
 平生行樂地 평생토록 즐거이 다니시던 땅
 今日但新阡 오늘은 단지 무덤길뿐이네.

주자가 스승인 이동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연평이선생>이란 3수의 작품 중 두 번째 작품이다. 3구의 ‘簞瓢’는 허름한 대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

27) 『論語』, 「顏淵」, “曾子曰 以文會友 以友補仁.”

28) 『論語』, 「公冶長」, “程子曰 人交久則敬衰 久而能敬 所以爲善.”

박에 담긴 물로 상징되는 가난한 삶 속에도 안빈낙도를 실천한 공자 제자 안회의 이야기다. 『논어』 「용야」에, “어질도다. 안회여! 대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을 마시면서 좁고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안회는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니, 어질도다. 안회여!”²⁹⁾라고 하였다. 스승인 이동을 안회에 견준 것이다. 5구의 염계구는 이학의 창시자인 주돈이를 송대 시인인 黃庭堅(1045-1105)이 평하여, “춘릉의 주무숙은 인품이 몹시 높고, 가슴속이 맑고 깨끗하여, 비 갠 뒤의 바람과 달같이 도량이 넓으며 심경이 쾌활하였다.”³⁰⁾라고 한 데서 비롯된다. 한편 주자의 스승인 정이를 기리는 장역의 <제이천선생문>도 증보했다.

劉屏山³¹⁾은 주자가 어렸을 때, 자를 지어준 스승이다.

冠而欽名	관례를 올리며 자를 짓는 건
粵惟古制	생각건대 오래된 옛 제도라네.
朱氏子熹	주씨 집안 아들 희는
幼而騰異	일찍부터 특출하다 소문났지.
交朋尙焉	친구 간에 숭상하는 도리 있어
請祝以字	내게 자를 지어 달라 청해 왔네.
字以元晦	그대의 자 원회라 지어주니
表名之義	이는 이름 드러내란 뜻이지.

劉屏山이 주자에게 자를 지어주며 쓴 <字朱元晦祝辭>이다. 주자는 14세 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程學을 익힌 胡籍溪, 劉白水, 유명산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힌 바 있다. 주자는 <雲谷二十六詠> 중 제14영 <晦菴>에

29) 『論語』, 「雍也」,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30) “春陵周茂叔 人品甚高 胸襟灑落 如光風霽月.”

31) 劉屏山은 남송의 劉子翬(1101-1147)를 가리키는데, 그의 자는 彥冲이고, 호는 屏山病翁이며 崇安(현 복건성) 사람이다. 병산에 은거하며, 강학에 전념했다. 胡憲 등과 도의로써 사귀었으며, 주자의 아버지인 朱松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이다. 『주역』에 뛰어났고, ‘復卦’를 중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 “옛날 병산옹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한 말씀의 가르침 보이셨네(憶昔屏山翁 示我一言教).”라고 했다. 유병산이 “나무는 뿌리에 감추었다, 봄이 되면 아름답게 잎을 피우고, 찬란히 펼쳐지는 것을 허용하고, 사람은 몸 안에 깊이 감추고, 신령스런 마음 안에서 살찌운다네(木晦於根 春容燁數人晦於身 神明內腹).”라고 자신에게 한 말을 기억했던 것이다.

주자가 학문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講友로 장남 현과 여동래가, 논적으로 육상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자는 34세가 되던 1163년, 수도 임안에서 남헌 張栻³²⁾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남헌 부친의 장례 때와 남악으로 함께 등산할 때의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편지를 통한 상호 교류는 남헌이 죽기까지 약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주자와 장식의 각별한 정은, 장식의 <城南雜詠二十首>에 화답한 주자의 <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주자는 제 9수 <麗澤堂>에서, “그대가 나를 그리워할 것 생각하면, 천 리 밖 꿈속에서도 서로를 찾게 되네(感君蘭懷我意 千里夢相尋).”라고 한 바 있다. 박세채는 그 중 9수를 뽑아 <奉同張敬夫城南諸>³³⁾이란 시제로 증보했으며, 주자와 함께 『近思錄』을 편찬했던 呂祖謙³⁴⁾의 <共和御製秋日幸秘書省近體詩>도 증보했다.

주자는 순희 2년(1175) 초여름 여조점의 주선으로, 강서성 鉛山縣 북

32) 張栻(1133-1180)은 중국 송나라 사상가로 자는 敬夫 혹은 欽夫이고 호는 南軒이다. 사천성 廣漢 출신이나 생애의 대부분을 호남성 담주(장사)와 형주(형양)에서 보냈다. 재상을 지낸 아버지 張浚의 음보로 남송의 관리가 되었다. 당시 朱子, 呂祖謙 등과 함께 東南의 三賢이라 일컬어졌다. 二程 再傳의 제자인 胡宏에게 사사하고 성학을 공부했다. 動的哲學인 胡氏湖南學을 계승하여 주자의 정설이 성립되기 전까지 큰 영향을 끼쳤으나, 이후에는 반대로 주자의 학설에 동조하고 湖南學에서 이탈하였다. 저서에 『南軒文集』 등이 전한다.

33) 『朱子大全』 卷3에는 <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으로 되어 있으며, 총 20수다. 박세채는 이 중 <東渚>, <船齋>, <麗澤堂>, <蘭圃>, <書樓>, <夢軒>, <卷雲亭>, <濯清>, <西嶼> 등 9수를 증보하였다.

34) 呂祖謙(1137-1181)은 남송의 성리학자로 절강성 婺州 사람이다. 호는 東萊이고 자는 伯恭으로, 주희, 장식과 함께 동남의 3현으로 불린다. 육구연 형제와도 친하여 주희와 육구연의 사상을 조화시키려 했다. 주희와 함께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등 4인의 학설을 평설한 『近思錄』을 편찬했던 인물이다.

쪽 荷湖山에 있는 절인 鵝湖寺에서 육구령(자수), 육구연(상산) 형제와 논변했는데, 이른바 ‘아호논변’이다. 주자는 육상산의 학문 태도를 ‘簡易’로, 육상산은 주자의 학문 태도를 ‘支離’로 평할 정도로 학문적 대립은 극점에 있었다. 그러나 3년 후인 1181년, 형의 묘지에 쓸 휘호를 부탁하기 위하여 남강을 방문한 육구연을 주자가 백록동 서원으로 초청하면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辯志와 의리지변에 관해 논의했고, 주자의 청으로 육구연은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³⁵⁾라는 『論語』의 구절을 주제로 강의하고, 강의 내용을 들에 새기기까지 했다. 또한 1188년에는 서신을 통해 무극과 태극에 관한 논변을 전개하기도 했다.

주자는 <鵝湖寺和陸子壽>에서, “덕의와 풍류를 일찍부터 공경한 바이더니, 이별한 지 3년이라 더욱 관심이 가네(德義風流夙所欽 別離三載更關心).”라고 육구령을 기리고 있다. 육구령은 陸九韶, 陸九淵 등과 함께 ‘三陸子’라고 일컬어지는, 二程의 학설을 존중한 인물이다. 박세채가 육상산의 형인 육구령의 <次鵝湖韻>과 <鵝湖示同志>를 증보한 것이 흥미롭다.

박세채가 육구령과 관련된 작품을 증보한 것은, 육씨 형제로 대표되는 심학에 대한 주자학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한 숨은 의도로 보인다. 이 밖에도 호현에게 보낸 <寄籍溪>, 주희의 문인인 임대춘를 전송하는 <送林熙之二首>, 홍경궁을 제수 받은 느낌을 읊은 <拜鴻慶宮有感> 등을 증보했다.

주자의 제자로서 가장 많은 작품을 증보한 인물은 三傳 弟子로 알려져 있는 熊禾(1247-1312)³⁶⁾이다. “대은암 동남쪽 몇 번째 봉우리인가. 나는 학문을 논하던 무이옹을 생각하네(大隱東南第幾峰 我思論學武夷翁).”라며 무이옹을 추억한 <經理武夷書院>을 비롯하여, <乙巳元日五峯書堂會拜五

35) 『論語』, 「里仁」, “子曰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36) 熊禾(1247-1312)는 원초의 저명한 이학가요 교육가로, 자가 位辛 혹은 去非이며, 호는 勿軒, 晩年の 호는 退齋다. 建陽 崇泰里(현 영구현), 일설에는 崇安 豐陽里(현 무이산 시성촌 진남부) 사람이다. 송 咸淳 14년(1274)에 진사가 되었고, 후에 汀州司戶參軍 등을 역임했다. 송이 망하자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무이산에 은거하여 洪源書堂을 짓고 강학에 힘쓴 인물이다.

十五人〉, 〈聞讀書有感〉, 〈與徐同志號石壁〉과 연시 형태의 〈別福淸玉融諸右五首〉와 〈上嚴察訪七首〉 등 응화의 작품이 14수나 된다. 37)

김이상의 『濂洛風雅』에는, 염계 주돈이, 명도 정호, 이천 정이, 강절 소용, 황거 장식, 속수 사마광 등을 기리는 〈육군자찬〉이 있다. 주자는 〈육군자찬〉의 〈涑水先生〉에서, “독실하게 배우고 힘써 실천하여, 절개 맑고 높았네. 덕 있고 말씀도 남겼으며, 공적이 있고 의열도 남아 있네. 심의를 입고 큰 띠를 차고, 공손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가네. 유상의 기풍 닮아, 경박한 사람 숙연하게 하네.”³⁸⁾라고 사마광³⁹⁾을 찬양했다. 증보만 있을 뿐 산제한 작품이 없는 유일한 인물이다. 박세채는 사마광의 작품 2수를 증보했는데, “숲속에 높이 솟은 누각에서 바라본 지 이미 오래건만, 꽃나무 너머 작은 수레는 여태 오지를 않네(林端高閣望已久 花外小車猶未來).”라고 하여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崇德久待不至〉와 邵雍에게 보내는 〈贈堯夫〉가 이에 해당한다. 사마광은 〈贈堯夫〉에서, “멀리 명리굴을 떠나, 스스로 완락와라 칭했네. 구름은 백석동으로 돌아가고, 학은 푸른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네.⁴⁰⁾”라고 하여 속세를 등진 채 고고하게 살아가는 소용을 찬양한 바 있다.

사마광 작품의 증보는, 사마광이 역사를 유학의 도를 밝히는 수단으로 여겨 『資治通鑑』을 편찬했고, 주자가 『資治通鑑』을 중시하여 『資治通鑑綱目』이란 저서를 남긴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마광이 유교 경전 해석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고, 불교와 도교를 철저히 배척했던 사실이 정통 주자학을 수호하고자 한 박세채의 의도와

37) 김이상의 『濂洛風雅』에는 응화의 작품이 실려 있지 않아 관심을 끈다.

38) “篤學力行 淸脩苦節 有德有言 有功有烈 深衣大帶 張拱徐趨 遺象凜然 可肅薄夫.”

39) 司馬光(1019-1086)은 陝州 夏縣(현재 산서에 속함) 사람이다. 북송의 유학자, 역사가, 정치가다. 자는 君實이고, 호는 迂叟이며, 속칭 涑水先生이라고 불리며, 시호는 文正이다. 溫國公의 작위를 하사받아 司馬溫公이라고도 하는데, 『資治通鑑』 269권을 지어 사학에 대한 공헌이 지대하다. 신법과 구법의 다툼에서 구법과의 영수로서 왕안석과 논쟁을 벌였다. 추밀원을 근거지로 한 왕안석 반대파(구법파)와 연계하여 강행하는 신법 반대를 주장했다.

40) “遠去名利窟 自稱安樂窩 雲歸白石洞 鶴立碧松柯.”

일치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박세채는 성리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주자와 사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작품을 증보했다. 주자의 스승인 이동과 유병산, 그리고 재전 제자인 옹화의 작품을 14수나 증보한 것이 특이하다.

3.3. 借自然明道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은 조선 시대 내내 부동의 지위를 누리며, 문학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文以載道’라는 ‘載道文學論’을 전범으로 여기며 주자의 시를 학습하려 했다. 바로 <武夷權歌>에 대한 관심이었다. <무이도가>는 ‘무이산의 뱃노래’란 뜻으로, 주자가 지금의 중국 복건성 무이산 계곡의 아홉 굽이의 경치를 노래한 것이다. 주자는 무이구곡 중 제5곡에 ‘武夷精舍’를 짓고 강학하며 <무이도가>를 지었는데, 첫 수를 제외한 1곡에서 9곡에 이르는 물의 굽이마다 이름을 붙인 뒤, 산수의 빼어난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탁월한 구곡의 풍경 묘사와 산림 사이에 깃든 신화 전설이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서시에 해당하는 제1수에 이어, 제2수 이하는 각각의 골짜기에 맞추어 쓴 총 10수의 연작시다.

사실 <무이도가>는 주자 자신이, “순희 갑진년(1184, 54세 때) 봄에, 정사에서 한가로이 지내다가 장난삼아 ‘무이도가’ 열 수를 지어, 벗들에게 주고 서로 더불어 한바탕 웃었다.”⁴¹⁾라고 밝힌 것처럼 ‘무이’의 승경을 노래한 산수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무이도가>가 구곡의 승경을 노래한 산수시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이는 송명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인에 의해 지어진 화운이나 차운 성격의 작품들이 한결같이 단순한 자연시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²⁾

41) 『晦菴集』卷9, “淳熙甲辰(1184)中春 精舍閑居 戲作武夷權歌十首 呈諸同遊相與一笑.”

42) 이민홍, 「무이도가」서시의 한중 화운시 비교 고찰, 『동방한문학』 제24권, 동방한

그러나 주자학을 철저히 신봉했던 조선에서는 주자의 <무이도가>에 대해 학문 입도 차제의 造道詩라는 견해를 견지하며, 성리학의 도를 밝히는 명도시나 성리학적 의미를 지닌 철리시나 관념시로 파악했다. 이는 원의 학자인 陳普⁴³⁾의 견해를 추종한 결과이다.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정상에는 선령이 있고,
山下寒流曲曲清 산 아래론 차가운 물 흘러 굽이마다 맑구나.
欲識箇中奇絕處 그 가운데 멋진 경치 알고 싶다면,
櫂歌閑聽兩三聲 뱃노래 두세 가락 한가히 들어 보게나.

서시에 해당하는 제1수로, 무이산의 맑고 차가운 구곡에 竹筏을 띄우고 뱃노래를 부르며 절승을 감상하는 遊子の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1구에서 무이산 정상에는 ‘선령’이 있다고 했다. 怪力亂神을 부정하는 성리학자인 주자로서, 무이산과 관련된 도교적 신화나 전설, 민간 신앙 등을 신봉할 수는 없었다. 다만 주자도 ‘무이산’을 도교적 성격을 띤 방외적 장소임은 부인할 수 없어 예둘러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진보는 이 작품을 도학적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대 해석했다.

주문공의 구곡은 순전히 도에 나아가는 차례다. 그 뜻을 세운 것이 진실로 구차하지 않다. 단지 무이산의 산수를 읊은 것이 아니다. 제1수는 도의 전체를 말하여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여 내외가 따로 없다. 만물과 만사에 미치어 근본이 있지 않음이 없다. 그 신묘한 부분이 고풍진미나 금옥의

문학회, 2003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43) 陳普(1244-1315)는 자가 尙德이고, 호는 惧齋이며 세칭 ‘石堂先生’이다. 집안이 가난했으나 분발하여, 어려서부터 4서5경을 읽어 유가 경전에 통달하였다. 장성해서는 주자의 이학에 잠심했다. 石堂山에 살며, 교수에 힘쓰니 따르는 학자가 수백인이었다. 1271년 몽고군이 남하하자 석당산(현 호패향 문봉촌)에 은거하며, 종일 경서 연구와 저술에만 매달렸다. 1279년 송이 멸망하자, 원에는 버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석당산에 設館倡學하였다. 그는 ‘不貴文詞 崇雅黜浮’의 입장을 견지했다. 후인들은 “莆中多賢 講學造就, 石堂殆爲鼻祖”라고 칭했다. 진보는 일생 동안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대부분 산일되고, 현재는 『石堂先生遺集』 22권, 『石堂先生遺稿』 1권, 그리고 자신이 注한 주자의 『武夷棹歌』 1권이 전한다.

귀함보다 더한다. 가히 사람이 발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기이하고 절묘한 곳을 알고자 하면, 뱃노래 두세 곡을 들어 보게나.⁴⁴⁾

진보는 <무이도가>를 단순히 무이의 산수를 노래한 것이 아닌, 순전히 도에 나아가는 차례를 읊은, 학문 입도 차제의 조도시로 본 것이다. 진보의 이러한 견해는 하서 김인후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하서를 계승한 浦渚 趙翼(1579-1655)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조익은 제1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풀이했다.

山上仙靈은 아마도 도의 본원이 하늘에서 나왔음을 비유하고, 山下寒流曲曲清은 도의 원류가 깊고 멀어서 곳곳마다 아름다움을 비유하며, 曲曲은 아래의 구곡을 지칭하며, 箇中奇絶處는 굽이마다 모두 아름다운 경치에 있음을 말한다. 權歌兩三聲은 아래의 아홉 수의 시를 지칭하고, 아래의 아홉 수가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냄을 말한다. 장차 아래의 아홉 수가 전개되기 전에 먼저 이를 펴니 곧 총서가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땅은 깊고 그윽한 곳이라, 사림들이 드물게 노는 바이다. 그 가운데 산수는 들어갈수록 기이하나, 그 계곡이 다한 곳에는 도리어 넓고 확 트인 평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도에 나아가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자가 이 열 수를 지어 흥을 산수에 기탁하여 아래의 아홉 수를 비유한 것이다. 도에 나아가는 차례를 말한 것으로, 이 수는 총서로 起에 해당한다.⁴⁵⁾

조익은 주자의 본래 의도와 달리, 거의 완벽할 정도로 ‘문이제도론’에 입각한 논리를 전개했다. 山上仙靈은 도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나왔음을, 山下寒流曲曲清은 도의 원류가 심원하고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으로 보았

44) “陳普曰 主文公九曲 純是一條 進道次序 其立義 固不苟不但 爲武夷山水也 第一首言道之全體 澈上澈下 無內無外 散之萬物萬事 無不在原 美妙處 過於膏粱珍珠金玉之貴也 不可無人發明也. 故曰 欲識箇中奇絶處 權歌閑聽 兩三聲.”

45) 趙翼, 『浦渚集』 卷22, 「武夷權歌十首解」, “山上仙靈 恐是喻道之本原 出於天者也 山下寒流曲曲清 喻此道深遠 處處皆美也 曲曲指下九曲 箇中奇絶處 言曲曲皆有美景也 權歌兩三聲指下九首之詩也 言下九首 說出其美景也 將爲下九首 而先以此發 則總序也 窃意此地幽邃 人所罕遊 其中山水愈入愈奇 而其溪谷盡處 又却平衍開豁 可取以喻造道之事 故朱子作此十首 托興於山水 以爲喻下九首 言進道次第 此首總序以起之也.”

다. 權歌兩三聲은 이하 아홉 수가 구곡의 절경을 그린 것을 지칭하는, 전체의 序에 해당한다고 했다. 산수에 흥을 기탁한 진도 차제의 시로 파악한 것이다.

九曲將窮眼豁然 구곡에 다다르니 눈앞이 확 트이는데
 桑麻雨露見平川 뽕과 삼 이슬과 비에 젖어 평평한 들판에 보이네.
 漁郎更覓桃源路 사공은 다시 무릉도원 길 찾겠지만
 除是人間別有天 이곳 말고 인간 세상에 별천지 있겠는가.

9곡을 노래한 제10수다. 무이구곡의 종착지인 구곡에 다다르자 눈앞이 확 트이면서, 평평한 들판에는 이슬과 비에 젖은 뽕과 삼이 보인다. 뽕과 삼은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대상이다. 『管子』의 「八觀篇」에, “산과 못에 가서 뽕과 삼을 살펴보고, 여섯 가지 가축의 생산을 헤아려 보면, 가난한 나라인지 부자 나라인지 알 수가 있다.”⁴⁶⁾라고 했다. 이어 “땅이 비옥하고 넓으면, 뽕과 삼을 심기가 쉽다(壤地肥饒 則桑麻易植也).”라고 했다. 사공은 뽕과 삼이 가득한 평범한 들판의 모습에 실망하여, 다시 무릉도원을 찾을지 모르나, 작자는 이곳이 진정 인간 세상의 별천지라 했다. 뽕과 삼이 무성하게 자라는 널찍한 들판은 풍요의 상징이다. 진리는 결코 먼 곳이 아닌,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유교의 현실주의적 합리적 인생관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 대한 진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활연관통하여 장애된 바가 없다. 날로 씀이 패연하여 만사가 이치가 통하니, 비록 우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더라도, 백성이 날로 활용하는 몇몇함이 있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사람을 떠나 세상과 끊으며, 심히 높고 행하기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른바 도란 것은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만약 이것을 버리고 도를 구하면 이단이고 사설이고 무민혹세의 논의일 뿐이다. 천리가 있는 곳은 성현 군자가 물리치고 끊는 바이어서 가슴에 남겨둘 수 없다.”⁴⁷⁾

46) 『管子』, 「八觀篇」, “行其山澤 觀其桑麻 計其六畜之產 而貧富之國可知也.”

47) “陳普曰 豁然貫通 無所有障礙 日用沛然萬事 皆理雖優入聖域 而未始非百姓日用之

포저는 이 구곡시를, “道는 평범한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말하고, 신기한 이단의 학문은 허망한 것임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했다. 진정한 도는 별천지가 아닌 인간 세상,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무이도가>와 함께 증보한 작품에, 주자의 <雲谷雜詩十二首>와 <雲谷諸詠>⁴⁸⁾도 있다.

박세채가 살았던 시대는 대내적으로는 당쟁이란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명과 청이 교체되는 혼란기였다. 명으로 대표되는 중화적 질서가 무너지고, 청의 등장으로 인한 逆天悖理의 위기감이 팽배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통 주자학의 강력한 수호였다. <무이도가>의 증보는, 주자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시대상의 반영이자, 『염락풍아』에 대한 주체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4. 格物致知之 詠嘆

격물치지란 『대학』의 “치지는 격물에 있다(致知在格物).”에서 비롯된다. 주희는 격물과 치지의 관계에 대해, “격이란 이른다는 뜻이고, 물은 사물과 같다. 사물의 理를 끝까지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한 것이다.”⁴⁹⁾라고 했고, “치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고, 지는 아는 것과 같다. 나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그 앎을 다함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⁵⁰⁾라고 했다.

‘격물’이란 사물에 나아가서 그 理를 궁구하는 것이고, ‘치지’란 나의 지

常 夫豈離人絕世 而有甚高難 行之事哉 所謂道者 不過若是而已 若捨此而求道 則異端邪說誣民惑世之論 天理之所 無聖賢君子 所屏絕 不以留之胸中.”

48) 『朱子大全』에는 <雲谷二十六詠>으로 되어 있는데, 『증산염락풍아』에는 <운곡제영>이란 시제로 <雲谷>, <蓮沼>, <藥圃>, <晦菴>, <草廬>, <懷仙>, <北澗>, <休菴> 등 8수를 증보하였다.

49) 『大學』 章句, “格至也 物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50) 『大學』 章句, “致 推極也 知 猶識也 推極吾之知識 欲其所知無不盡也.”

식을 확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격물이 치지의 방법이라면, 치지는 격물의 목적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지식이 누적되면, 하루 아침에 활연관통에 이르게 된다.

『대학』에, ‘物格而後知至’라고 했다. 주자는 물격과 지지에 대해, “물격은 물리의 극치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지지는 내 마음에 아는 것이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⁵¹⁾라고 했다. 물격은 격물의 완성을, 지지는 치지의 궁극적 경지를 의미한다. 물격은 격물의 단계를 거쳐 격물의 목적 또는 완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물의 理가 온전히 드러난 상태이다. 격물과 물격, 치지와 지지의 관계를 주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한 사물에 대한 격물에서 출발하여 노력을 오래 하여 하루 아침에 활연관통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모든 사물의 겉과 속, 정밀함과 조잡함이 이르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와 커다란 작용이 밝아지지 않음이 없게 되는데 이를 물격이라 하며 지지라 이른다.⁵²⁾

격물의 단계가 축적되어 豁然貫通에 이르면 물격의 단계가 되고, 내 마음의 지식도 완전히 지극해지는 지지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격물 치지의 지극한 경지를 시로 형상화한 인물이 소옹이다. 소옹은 수학과 역학을 바탕으로, 성리학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북송의 학자이다. 동시에 1,500여 수의 시를 남긴 시인으로, ‘소강절체’라는 說理的 경향의 이학시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소옹의 시론은 내성적 성향의 ‘이물관물론’으로 표현된다. 소옹은 관물에 대해, “물을 본다고 이르는 것은 눈으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理로 보는 것이다. 천하의 물은 理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性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命이 있지 않은 것

51) 『大學』章句, “物格者 物理之極處 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 無不盡也.”

52) 『大學』章句, “至於用力之久也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이 없다.”⁵³⁾라고 했다. 소옹은 이어,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것이 천하의 진지이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넘을 수 없다. …물로써 물을 보게 되면, 또한 어찌 그 사이에 내가 끼겠는가. 이는 나 또한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또한 나다. 나와 다른 사람 모두 物이다. 천하의 눈을 자기의 눈으로 능히 삼을 수 있다면, 그 눈은 보지 못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⁵⁴⁾라고 했다.

소옹의 이른바 ‘이물관물’이란 천지만물의 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인간 자신을 객관 세계에 몰입시켜 만물과 동등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 감각 기관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감정에 얽매이는 주관적 마음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이로써 사물을 보는 것이다. 감정에 치우친 주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한다. 바로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耳目聰明男子身	귀와 눈이 총명한 대장부의 몸을,
洪鈞賦與不爲貧	하늘이 주셨으니 모자람이 없네.
須探月窟方知物	무릇 월궁을 알아야 만물을 알 수 있으니,
未躡天根豈識人	천근을 모르면서 어찌 사람을 알리오.
乾遇巽時觀月窟	건이 손을 만난 때에 월궁을 보게 되고,
地逢雷處見天根	지가 뇌를 만난 때에 천근을 볼 수 있나니,
天根月窟閑往來	천근과 월궁이 한가로이 오고 가니,
三十六宮都是春	일 년 삼백 육십 오일이 온통 봄이로구나.

『주역』의 ‘복희 8괘’를 읊은 <觀物吟>이다. 제2구의 ‘홍균’은 만물의 造化主를, 제3, 4구의 월궁과 천근은 음양을 지칭한다. ‘월궁’이란 음의 뿌리로, 곧 양이요, ‘천근’이란 양의 뿌리로, 곧 음인 까닭이다. 『주역』에서

53) 『皇極經世書』 卷4, 「觀物內篇」之二十, “所以謂之觀物者 非以目觀之以心也 非觀之以心而觀之以理也 天下之物 莫不有理焉 莫不有性焉 莫不有命焉.”

54) 『皇極經世書』 卷4, 「觀物內篇」之二十, “此三知者 天下之眞知 雖聖人無爲過之… 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是知我亦人也 人亦我也 我與人皆物也 此所以能用 天下之目爲己之目 其目無所不觀矣.”

는 하지에 한 陰이 처음 생긴 것이 姤卦로서 이를 월굴이라 하고, 동지에 한 陽이 처음 생긴 것이 復卦로서 이를 천근이라고 한다. 제3,4구의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은, 物은 달을 맡은 음에 속하고, 사람은 하늘을 맡은 양에 속하므로, 물을 알고자 하면 달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알고자 하면 하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제5구의 ‘乾遇巽時觀月窟’은 상괘가 乾이며 하괘가 巽인 천풍구에, 월굴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제6구의 ‘地逢雷處見天根 逢雷處見天根地逢雷處’는 상괘는 곤괘와 하괘는 진괘로 지뢰복인 동지를 표현한 말이다. 만물의 생장은 地雷復인 동지부터 시작되고, 만물의 성숙은 天風姤인 하지부터 시작되는 까닭이다. ‘건, 손, 지, 뢰’ 등은 주역의 괘상으로, 일 년 열두 달의 변화 과정을 지칭한다. 마지막 구인 ‘根月窟閑往來 三十六宮都是春’은 중국 고대의 曆法에 따른 것이다. 역법에서는 30도가 한 궁이 되므로, 한 周天은 12궁이 되고, 봄, 여름, 가을 세 철은 양으로 합하면 36궁이 된다. 다만 겨울은 음으로 동지에 양이 처음 발생하므로, 동지로부터 36궁의 봄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소옹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사시사철의 변화를, 봄의 모습 그대로라고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주자는 <육군자찬>의 <康節先生>에서, “손으로 월굴을 더듬고, 발로 천근을 밟았네. 한가로움 가운데 고금을 넘나들고, 고요함 속에 건곤을 보았네(手探月窟 足躡天根 閑中古今 靜裏乾坤).”라고 소옹을 찬양한 바 있다.

堯夫非詩愛吟詩	요부는 시 읊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詩是堯夫先見時	시는 요부가 먼저 보게 할 때라.
直在胸中貧亦樂	다만 마음속은 가난해도 즐거운데
屈於人下貴奚爲	남 밑에서 굽히고 산다면 부자인들 뭐하리.
誰何樂可醫無病	그 누가 어찌 없는 병을 치료하겠으며
多少金能買不疑	얼마의 돈으로 의심 앎음을 살 수 있겠는가.
遲老更逢春未老	더디게 늙어 다시 봄을 만나니 익숙하지 않아
堯夫非詩愛吟詩	요부는 시 읊기를 좋아함이 아니다.

박세채가 증보한 <首尾吟>⁵⁵⁾ 4수 중의 하나이다. <首尾吟>은 소옹⁵⁶⁾이 지은 모두 135수⁵⁷⁾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매수마다 首尾 구절이 모두 ‘堯夫非是愛吟詩’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2구의 끝에 ‘興有時’, ‘未耗時’, ‘春出時’, ‘可愛時’처럼 자신의 시를 창작하던 시기를 밝히는 특징이 있다. 명대 徐師曾은 「文體明辨序說」에서 “수미음이란 것은, 같은 구절을 첫 구와 끝 구에 모두 쓴 것이다. 이러한 체는 다른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 오직 송나라 소옹의 문집에만 있다.”⁵⁸⁾라고 했다. 이후 수미음체는 도학 기반의 문인 학자들이 자신의 察理觀物의 결과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자주 창작되었다. 조선의 경우만 보아도 30명에 가까운 작가가 수백 수에 달하는 수미음체를 남기고 있다.⁵⁹⁾

55) 『擊壤集』 卷20에 실려 있다. 조선에서는 이 <수미음>을 차운한 작품이 전하는데, 宋時烈的 『宋子大全』 卷4 <次康節首尾吟韻>은 134수나 되는 거작이며, 金正默의 <次首尾吟>은 그가 추앙하던 宋時烈的 <次康節首尾吟>을 차운하여 자신의 일생과 회한을 읊은 시로 119수의 연작시이다.

56) 소옹(1011-1077)은 북송 시대의 대학자로, 자는 堯夫, 시호는 康節이다. 北宋五子の 한 사람으로, 저서로는 『皇極經世書』, 『伊川擊壤集』, 『어초문답』 등이 있는데, 『황극경세서』 중 觀物內篇과 觀物外篇은 철학에 관한 대표작이다. 소강절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으로, 청소년 시절에는 읽지 않은 유학 책이 없었고, 삼복 더위에도 부채를 쓰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화로를 쓰지 않았다. 특히 주역을 신봉하여, ‘역을 배우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유학 사상을 연구하기도 했다. 청소년 시절, 共城의 영주였던 李之才(?-1045)를 만나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하도, 낙서와 복희씨의 8괘 64괘의 그림을 전수받았다. 소옹은 『易經』이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에 복희씨가 만든 원초적인 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뒷날의 후천역과 구별하기 위해 선천역이라 하고 몇 가지 그림으로 복원했는데, 이른바 선천도 혹은 복희팔괘도다. 이 선천도를 바탕으로 유불선의 사상을 포용하고 상수 철학의 정신을 엮어 ‘선천학’이란 학문을 제창하였다. 그는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괘가 갈라져 나오는 이치를 바탕으로 주역의 괘상을 상수학적으로 풀어 元會運世의 시간 법칙을 발견했다. 주자는 주렴계, 정명도, 정이천과 함께 소강절 선생을 도학의 중심 인물로 삼았다. 그는 나라로부터 관직에 나오라는 술한 제의도 마다하고 낙양에 거주하면서 부필, 사마광, 여공저 등 구법당 등과 교류하며 한평생 진실한 학자로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

57) 『伊川擊壤集』 권20에 134수가, 『全宋詩』 7권 381에 나머지 1수가 실려 있다.

58)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首尾吟者 一句而首尾皆用之 此體他集不載 唯宋邵翁有之.”

59) 조선에서는 이 <수미음>을 차운한 작품이 전하는데, 宋時烈的 『宋子大全』 卷4 <次康節首尾吟韻>은 134수나 되는 거작이며, 金正默의 <次首尾吟>은 그가 추앙

소옹에 대해, “시에 ‘자락’과 ‘관물지락’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음을 말하여 그의 시론을 담아내고 있다.”⁶⁰⁾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락’이란 단순한 외면적 즐거움이 아닌 기쁨과 슬픔을 넘어선, 以物觀物을 통해 얻어진 내면적 즐거움을 의미한다. 소옹은 『伊川擊壤集』序에서, “격양집은 이천옹의 자락지락이다. 스스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때와 만물의 자득을 즐길 수 있다.”⁶¹⁾라고 작시의 목적을 밝히며, 이러한 즐거움은 ‘관물지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과 학문을 돌아보는 자기 응시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소옹은 자신의 거처를 안락한 집이란 뜻의 ‘安樂窩’라 정하고 ‘안락’ 선생이라 자호하며, 평생을 책과 사색, 시와 함께 살았던 인물이다. 소옹은 스스로, “61년 세월에 일 없는 손님(六十一年無事客).”을 자부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즐겼다. 그래서 <安分吟>에, “부귀를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공자는 젊은 나이에 마땅히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되이 한밤중에 몸과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네(富貴如將智力求 仲尼年少合封侯 世人不解青天意 空使身心半夜愁).”라고 했다. 또한 <天道吟>에, “고마워라 봄과 가을 흥취에 편승하여, 작은 수레 타고서 문밖을 나가보네(春秋賴乘興 出用小車兒).”라고 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분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暮春吟>에, “숲 아래 살며 항상 늦잠 자는데, 사람 발길 끊어져 견딜 수 없다. 봄은 무르익고 낮은 긴데 발은 땅에 드리워져, 바람도 없는 정원에 꽃잎이 날린다(林下居常睡起遲 那堪車馬近來稀 春深晝永簾垂地 庭院無風花自飛).”라고 하여, 세속을 떠난 삶 속에서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저무는 봄에 대한 애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首尾吟> 제12수의 “숲 사이로 수레와 말 찾아움이 드물어, 티끌 밖에는 술잔이 함부로 오가지

하던 宋時烈的 <次康節首尾吟>을 차운하여 자신의 일생과 회한을 읊은 시로 119수의 연작시이다.

60) 류종목, 송용준 역해, 『송시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153쪽.

61) 『伊川擊壤集』序, “擊壤集 伊川翁 自樂之詩也 非唯自樂 又能樂時與萬物之自得也.”

얹네(林間車馬自稀到 塵外盃觴不浪飛).”를 연상시킨다. 정호는 소강절의 묘비명에서 “소강절의 도는 편안했으며, 또한 학문을 이루었다(安且成).”라고 했다.

박세채는 『증산염락풍아』에서 주자 다음으로 소옹의 작품을 많이 증보했다. 소옹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청야음> <관물음> <관역음> 외에, 새로이 <觀物詩>, <首尾吟>, <天意>, <極論>, <先天吟>, <謝富丞相招出仕>, <安分吟>, <感事吟>, <天道吟>, <閒吟>, <觀物> 등을 증보한 것이다.

4. 結論

송말 원초의 성리학자인 김이상이 송대 성리학자들의 작품을 모아 편집한 『염락풍아』는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필수적 교양서로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박세채는 김이상의 『염락풍아』를 증산하여 1678년에 『증산염락풍아』를 간행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상이나 문학관 등을 함축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增刪濂洛風雅』가 지닌 성격을 알아보고, 이어 박세채가 『增刪濂洛風雅』에 증산한 작품 중, 증보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증보된 작품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성 수양의 잠계이다. 박세채는 고체의 형식을 빌려 箴이나 銘이란 이름으로, 심성의 수양법 중 하나인 敬을 다룬 작품을 주로 증보하였다. 박세채의 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敬에 대한 先儒의 여러 설을 뽑아 엮은 『心學至訣』등을 저술한 사실로도 증명된다. 박세채가 증보한 대표적인 작자와 작품으로는 범준의 <심잠>, 장식의 <주일채잠>과 <주일잠>, <자수명>, 진덕수의 <경의채명>과 <심경찬>, 진백의 <숙흥야매잠>

등이다.

둘째, 지동도합의 표출이다. 박세채는 주자를 중심으로 성리학 발달에 기여한 학자나 주자와 직접적인 사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작품을 주로 증보했다. 지동도합의 전형으로 성리학자인 소옹과 장식, 주자의 스승인 이동과 유병산, 그리고 재전 제자인 옹화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셋째, 차산수명도의 구현이다. 유학자에게 산수는 때로는 단순한 자연이 아닌 유교의 도를 구현하는 대상으로 승화하여 표현된다. 무이구곡의 절경을 노래한 <무이도가>가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이 작품을 학문 입도 차제의 조도시로 파악했다. 이는 진보의 설을 추종한 것으로, 김인후를 비롯한 대다수 성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러나 『염락풍아』에 실리지 않은 <무이도가>의 증보는, 주자학만을 절대시한 시대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중화적 질서가 무너지고 역천패리의 위기감이 팽배하는 상황에서의 정통 주자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격물치지의 영탄이다. 격물치지는 『대학』의 ‘致知在格物’에서 비롯되는데, 격물은 치지의 방법이고 치지는 격물의 목적에 해당한다. 격물치지의 예로, 박세채는 <觀物詩>, <首尾吟>, <天意>, <極論>, <先天吟>, <安分吟>, <感事吟>, <天道吟>, <閒吟>, <觀物> 등을 새로이 증보했다.

참고문헌

『論語』

『大學』

『書經』

『詩經』

『皇極經世書』

劉勰, 『文心雕龍』

『性理大典』(영인본), 보경문화사, 1988.

朴世采, 『南溪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38-142.

朱子, 『朱子大全』,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2010.

주희 여조겸 편저, 『근사록집해』 1 · 2, 대우학술총서, 2006.

김태완 선역, 『송시선』, 보고사, 2009.

송용준 · 오태석 · 이치수, 『송시사』, 역락, 2004.

김기림,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제6집, 동양고전학회, 1996.

김영봉, 「『濂洛風雅』 異本 연구」, 『동방고전문학연구』 제4집, 동방고전문학회, 2002.

류종묵, 송용준 역해, 『송시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새문사, 2015.

이민홍, 「무이도가」서시의 한중 화운시 비교 고찰, 『동방한문학』 제24권, 동방한문학회, 2003.

최은주, 「朝鮮後期 『濂洛風雅』의 수용양상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제26집, 대동한문학회,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Additional Works of
『Added-Decreased Yeomrakpunga(增刪濂洛風雅)』
by Park Se-chae

Kim, Dong-ha

Jin Lu Xiang(金履祥, 1232-1303) was one of the prominent Neo-Confucianists of the early Yun Dynasty. He compiled and published the book named as Yeomrakpunga(濂洛風雅). The book is a selection of poems written by the representative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With the adoption of Neo-Confucianism by the Chosun Dynasty, this book was introduced to intellectuals and was widely read until late Chosun period. And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it was newly edited by Park Se-chae(朴世采, 1631-1695). The name of the book is Jungsanyeomrakpunga(增刪濂洛風雅). So, another book was created,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one. Through this book, Park tried to represent the literary aspects and the phases of the time.

This thesis consists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I compared Yeomrakpunga with Jungsanyeomrakpunga based on the two compiler's literary aspects and Neo-Confucianist's ideology. And I studied the editing of Jungsanyeomrakpunga. In the two part,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ditional works added by Park Se-chae. For this, I analyzed the contents with respect to four points: encouragement of mental cultivation, expression of common intention, moral doctrine, and

the embodiment of truth in nature.

Zuzi's works consist of more than half the total volume of works. This symbolizes that Park Se-chae added to the original works in order to strengthen the doctrines of Zuzi. Due to these facts, I have concluded that Park Se-chae added to the original works for the reinforcement of Zuzi's doctrines, and the promotion of mental cultivation. After the two was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the Ching Dynasty, the social atmosphere and national crisis werw connected.

Key words : Jin Lu Xiang(金履祥), Yeomrakpunga(濂洛風雅). Park Se-chae(朴世采), Jungsanyeomrakpunga(增刪濂洛風雅), Neo-Confucianism(性理學), orthodox Neo-Confucianism(正統朱子學)

투고일 : 2016년 7월 15일, 심사 : 8월 8일 ~ 8월 18일, 게재확정 : 8월 22일